

농업·산림·해양 치유 자원, 미래 비전 논의

농림해양 치유 자원 연계·지역단위 융복합 모형 개발 방안 논의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30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치유 농원(황금의 숲)에서 제2차 '농촌진흥청 치유 농업 포럼'을 개최했다.

농촌진흥청 치유농업 공개 토론회(포럼)는 치유농업 산업화와 관련 정책 확산을 위해 민간, 학계, 정부·행정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결집하는 토론 협의체이다.

올 1월에 제1차 공개 토론회(포럼)를 개최했으며, 오는 11월까지

본청 및 치유농업시설, 도 농업기술원 등에서 매월 1회 열릴 예정이다. 이번 공개 토론회(포럼)에서는 지역단위 농업·산림·해양 치유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한 융복합 모형(모델) 개발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치유농업 분야 자원 현황 및 연구 성과(농촌진흥청) △해양 치유 자원 연구 성과·치유 표준 및 치유 지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산림치유 분야 연구개발 추진 현황(국립산림과학원) 등을 공유했다.

(사)스마트치유산업포럼 김창길 원장이 좌장을 맡은 종합 토론회에서는 단국대학교 환경원예학과 이예경 교수, 미륵산자연학교 교육농장 손진동 대표, 가톨릭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지호선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가 치유 자원 연계 방안과 융복합 모형 사례 제시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번 공개 토론회(포럼)는 정책 수혜자의 목소리를 담자는 뜻에서 농업과 산림 자원을 결

합해 치유체험을 할 수 있는 치유 농장에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숲과 농장 시설을 둘러보며, 치유 자원을 연계한 농장 운영 사례를 견학했다.

농진청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제2차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 종합계획(27~31)' 핵심 전략에 포함할 방침이다"라며 "앞으로 열릴 공개 토론회를 통해 치유농업 산업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대경 기자
press@nonguplimes.com

NH농협생명, 제11기 고객패널 발대식 개최

시니어 고객 의견 반영 위한 특화패널 신설

NH농협생명(대표이사 박병희)이 30일 서대문구 본사에서 제11기 고객패널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객패널 제도는 고객 의견을 반영한 상품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제11기 고객패널은 총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이들은 △상품 분석 및 개선 의견 제

안 등 실질적인 업무개선을 위한 과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인구구조 변화 및 시니어 고객층 만족도 제고를 위

해 온라인 시니어 특화패널을 신설해 운영한다.

시니어 특화패널은 50-60세 이상 고객으로 구성되며, 5월부터 시니어 대상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 의견을 집중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3월 30일(월) 김기동 NH농협생명 부사장(왼쪽에서 여섯 번째)이 제11기 고객패널들과 발대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례식장 운영 농축협 한자리에...농협, 장제사업 발전 방향 논의

농촌 복지 기반시설 역할 강화... 농심전심 운동 실천 확산 다짐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는 25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농협장례식장 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농협은 현재 전국 43개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42개 농협이 '농협장례식장 전국협의회(회장 세종연서농협 조합장 김병민)'를 구성해 장제사업 운영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장제사업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범농협이 추진 중인 '농심전심 운동'의 실천 확산 방안에도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농업·농촌의 가치와 공익적 역할을 국민과 함

께 공유하고, 지역사회 상생 실천에 농협 장례식장이 적극 동참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호동 회장은 "계속되는 인구감소와 장례문화 간소화로 장제사업의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협 장례식장은 고통화가 심화되는 농촌지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활 기반시설인 만큼,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바탕으로 농촌 복지사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강태영 기자
kya0712@daum.net



▲2026년 농협장례식장전국협의회 정기총회 개최(농협 제공)

농업인 배우자 '겸업 허용'...자격 유지 기준 완화

영농·소득 2천만 원 미만 시 경영체 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 개정에 따라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고 농업경영체 등록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에 따른 근

로소득이 연 2천만 원 미만일 경우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그동안 여성농업인 단체와 국회 등에서는 농촌 지역의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농업인 자격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다만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지역 사무소에 민원 대응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K-농정협의체'를 통해 농업인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한기 단기 취업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번 고시 개정을 추진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맞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농업인 확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과 지역 사무소에 민원 대응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청일 직전 달을 포함한 12개월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이·통장 서명 또는 마을 농업인 2인 이상의 확인을 받은 영농사실 확인서를 관할 농관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근로소득 심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최종 확인 및 등록이 이뤄진다.



▲농식품부 전경

농기평, '대한민국 공공기관평가 우수대상' 수상

정책소통·적극행정 부문 우수대상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기평)은 지난 24일 국회의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회 '2026 대한민국 공공기관평가 우수대상' 시상식에서 정책소통·적극행정 부문 우수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식은 공공기관평가 우수대상 조직위원회와 이종배 국회의원, 정태호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정책소통·정보

공개·적극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공공기관을 선정·시상했다.

농기평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한 대국민 소통 강화, 연구개발(R&D) 성과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홍보, 생생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효율화 등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며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

다. 특히, 유튜브·SNS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정책 홍보 확대와 국민참여형 소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농식품 R&D 성과에 대한 국민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했다.

노수현 농기평 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적극행정을 실천해온 전 임직원의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농식품 R&D 성과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혁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지자체 합동, 전국 농약 판매업체 대상 유통 점검 실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에 등록된 전체 농약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정·불량농약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농약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농관원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합동점검

반 등을 편성하여 전국 전체 농약 판매업체(5,7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상반기(4-5월)와 하반기(8-9월)로 나누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등록 농약, 밀수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여부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여부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

제 미준수 행위 여부 등이다.

농관원 김철 원장은 "안전한 농약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농약 판매업체는 관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농약 유통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limes.com

손쉽게 만나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가락시장을 한눈에!

우리가족 건강밥상에 올라오는 안전한 농산물 이야기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가락시장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www.garak.co.kr